

# 연기설에 대한 중관학파의 해석과 철학적 관점: 사회적 실재의 발현과 제약

김현구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원)

## 국문 초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관학파가 받아들인 '상호인과율'로서의 연기(緣起)설을 사회제도의 출현과 제약의 과정에 대입하여 설(J. Searle)이 제시한 '사회적 실재'를 해명하고, 중관학파의 관점이 철학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설은 사회적 실재가 드러내는 '위상기능'과 '의무력'을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그 원천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처럼 사회적 실재가 언어를 전제한다고 가정하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 역시 사회적 실재라는 사실 때문에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와 언어 사이의 순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하나의 사회제도가 사회적 실재로서 위상기능을 확보하는 과정을 은유적 사상인 '가설'(假說) 개념을 통해 해명한다. 다음으로 제도적 사실이 출현할 때 드러나는 의무력이 사용자들의 인지적 역량과 상호작용하면서 강화되거나 약해진다고 해명한다.

사실 중관학파는 모든 현상의 비실체성으로서의 공성을 주장하면서 가치론적 허무주의의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서 중관학파가 받아 온 가치론적 허무주의의 혐의란 공성 즉 비실체성으로부터 모든 사태가 열린 관계를 지향할 수 있게 됨으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7355)

써 무작위적 관계 맺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이다. 이 무작위성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변성을 함축한다. 하지만 비실체적 존재들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의한 현상의 발현이 진실한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의 세계에서나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실체성이 관계들의 열린 확장의 장을 마련한다면 상호의존성이 오히려 관계 맺기를 제약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실재들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주제어: 가설, 비실체성, 상호인과율, 사회적 실재, 위상기능, 의무력

## I. 들어가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관학과(Madhyamaka)가 받아들인 ‘상호인과율’(mutual causality)로서의 연기(緣起: praṭītyasamutpāda)설을 사회제도의 출현과 제약의 과정에 대입하여 설(J. Searle)이 제시한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를 가설(假說: prañāpti) 개념으로 해명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 실재는 비실체성(無自性, niḥsvabhāva)을 기반으로 발현되며 사용자와 상호의존적 관계에 의해 유지되거나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설이 제시한 사회적 실재란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의도나 요구의 지향성(intentionality) 때문에 ‘위상기능’(status function)을 가지며, ‘의무력’(deontic power)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sup>1)</sup> 또한, 사회제도로써 화폐나 결혼과 같은 사회적 실재는 자연계의 물리적 대상들과 달리 우리의 정신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하며, 오직 합의를 통해서만 인과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자연적 실재’(natural reality)와는 다른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다. 설은 사회적 실재가 드러내는 위상기능과 의무력을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그 원천을 찾고 있다. 그는 사회적 실재가 언어를 전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 역시 사회적 실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특히 상징을 통한 기호화의 양상을

1) John Searle 1995, 40.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이 지점에서 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sup>2)</sup> 따라서 설이 봉착한 사회적 실재와 언어 사이의 순환적 관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 실재로서 위상기능을 얻는 과정을 중관학파가 제시한 '가설' 개념을 통해 '대상'과 '그 대상에 붙여진 개념' 사이에서 확보되는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호화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사회적 실재들이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 배경이 일차적으로는 기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과 그 언어 기표가 인과적 지시관계를 갖게되는 해명으로서 중관학파가 제시한 가설 개념을 통해 탐색한다.<sup>3)</sup>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생겨난 사회제도 역시 존재화된다. 이는 분할 할 수 없는 대상 혹은 추상적 대상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투사(projection)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이 과정이 가설 즉 인과적 지시관계가 확립되는 우리 경험의 양상이다.<sup>4)</sup> 가설에 의한 해명을 바탕으로 사회제도가 출현하면서 드러나는 의무력을 사용자들에게 역할을 강제하는 규범성으로서 유지되는 배경도 탐색한다. 이는 '제도적 사실'(institutional fact)의 일종인 '위치 기수법'(positional system)과 '십진법' 체계가 지배적 연산원리로 작동하는 과정을 검토하여 사용자와 제도적 사실의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조망하는 것이다. 제도적 사실 역시 그 사용자가 가진 인지능력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유지와 소멸의 양상을 명료하게 드러냄으로써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의 결과, 비실체적 사회적 실재의 '발현' 과정을 가설 개념을 통해 인과적 지시관계로 드러내며, 상호의존성을 유지와 소멸과 같은 '계약의 계기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차연성에서 가설까지

원인이란 용어는 결과와 짝을 이루는 대어(對語)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사건에 대해 그것을 야기시킨 요인이나 조건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sup>5)</sup>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암묵적으로 선형적

2) 노양진 2021, 187-210 참조. 이 글에서 사용하는 기호 이론과 설의 사회적 실재에 관한 논의는 노양진의 학문적 업적에 힘입어 출발하였음을 밝힌다.

3) 김현구 2016 참조. 이때의 가설이란 '증익(增益, samāropa)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증익은 우리가 무언가에 원래 대상이 가지는 의미 이상을 덧붙였을 때 발생한다.

4) 노양진 2009, 26-32 참조. 여기에서 인과적 지시관계란 언어가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정된 관계를 의미한다; 김현구 2021 참조.

인과율이 적용된다. 이는 과학적 방법을 구체화시켰으나, 인과의 고리가 가정되고 발견될 수 있도록 선택되고 한정되었으며, 변수들은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통제될 수 있는 정도로 축소되었다. 즉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것들 상호 간의 작용을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한 가운데, 변수들은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원인-결과 인과율(cause-effect causality) 패러다임에 근거한 방법론은 예측 가능성과 통제라는 분석의 목표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졌다.<sup>6)</sup>

붓다 당시 브라흐만(Brahman)과 아트만(ātman)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바라문교는 아트만이 현상계에 드러난 양상이며 인과적 효과는 언제나 세계의 근본질료이면서 사물들에 내재하고 있는 브라흐만의 힘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결국, 어떤 개체가 다른 특별한 개체나 상태로부터 기인하고 그것에 의해 한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개체가 그것으로부터 속성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거부하는 차르바카(Cārvāka)의 우연론은 현대 철학의 딜레마인 존재론적 본질주의와 가치론적 허무주의의 모순적 동거와 같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 파국적 관계의 출구는 실체론을 거부하면서도 윤리적 책임 주체로서 1인칭 의식의 존재론적 정당성을 비실체성과 함께 해명하는 것이다.<sup>7)</sup>

붓다는 ‘차연성’(idapaccayatā)을 통해 현상들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생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차연성은 원인-결과 인과율 패러다임에 기반한 존재론적 본질주의와 실체론을 거부하면서도 가치론적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중도 패러다임의 서막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발생하면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5) 안건훈 2005, 15.

6) 조애너 메이시 2004, 40-41 참조. 과학자들의 도구와 탐구가 확장되면서 세계가 항상 예측에 합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7) 고대 인도에서 차르바카의 등장으로 원인-결과 인과율의 한계성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 첫째, 제일원인으로부터의 전개는 ‘새로운 것’과 ‘의미 있는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차르바카가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동일성 입장을 거부하면서 제기한 문제로 실체성에 기반한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현상의 발생을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원인-결과 인과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가치론적 허무주의에 빠진다. 즉 차르바카가 보여준 바와 같이 실체론 비판만으로는 현상의 발생과 제약의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인-결과 인과율로부터 실체론으로 나아가는 양상은 제일원인을 거부하거나 비실체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차르바카와 같이 제일원인을 거부하더라도 인과적 현상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가치 판단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므로 이 접근법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일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비실체성을 주장하면서도 인과적 현상의 다채로운 양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 요구된다.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sup>8)</sup>

이 차연성은 형이상학적 실체로서 아트만과 브라흐만을 주장하는 바리문교를 비판하는 ‘무아’(無我; anātman)설로 확립된다. 특히 무아설은 12지 연기설을 통해 현현하는 1인칭 의식의 존재론적 양상을 비실체성으로 규정한다.

이 차연성은 의식을 가진 존재 ‘유정수’(有情數, sattvākhyā)와 사태 일반으로서의 ‘비유정수’(非有情數, asattvākhyā) 모두에게 적용되는 존재 양상의 보편적 원리이다.

“바야흐로 상좌(上座)는 말하였다. 연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유정수이고, 둘째는 비유정수이다. 전반부의 두 구문은 두 종류를 모두 포섭하니, 이 구문에는 [유정·비유정]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명을 연하여’등의 말은 오직 유정만을 포섭하니, 유정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이다.”<sup>9)</sup>

즉 12지 연기설이 유정의 의식현상을 설명하는 특수성을 가진다면, 차연성은 유정의 의식현상과 비유정수의 존재론적 특징 모두를 설명할 수 있다. 차연성을 사태 일반에 적용하면 비실체적 양상이 더욱 명료하게 부각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식객관 영역의 한 사례인 씨앗과 싹에 차연성을 대입해보자. 씨앗은 주변의 환경이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싹으로서의 존재론적 위상을 갖출 수 있다. 즉 씨앗에서 싹이 돋았을 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씨앗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이미 싹으로 발현하여 흙과 양분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같은 주위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현상을 이어갈 뿐이다. 여기에서 차연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 씨앗이 주변환경과의 조건에 부합하면 싹이라는 생명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차연성은 생명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작인이 아니며, 존재의 생멸 변화를 진실하게 해명하는 보편적 원리로서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의 생멸변화를 진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씨앗으로부터 피어난 싹’과 같은 세간에서 통용되는 ‘관습적 언어관’(vyavahāra-satya)을 통해 선행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그것과 비슷한 양상을 가진 결과만을 연결해 바라보곤 한다. 이 경우 원

8) SN. II. 28, 65, 70, 95 등: imasmimsati idamhoti, imass uppada idamuppajjati. Imasmim asati idam na hoti, Imassa nirodhādamnirujjhati.

9) 『순정리론』 권25 (T. 29, 482a5-8): 且上座言, “緣起有二, 一有情數, 二非有情. 前兩句文, 通攝二種, 言無別故. 無明緣等, 唯攝有情, 有情有故.”

인-결과 인과율에 근거해 선형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모델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태의 진실한 양상을 관찰하지 못한다.<sup>10)</sup> 따라서 자연성의 관점을 통해 확인한 씨앗과 싹의 진실한 양상이란 둘은 서로 다른 실체가 아니며, 위상 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드러내는 언어적 분별(vikalpa)일 뿐이다. 오히려 씨앗이 싹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따라서 주의깊은 관찰에 의하면 일련의 사건들이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현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간의 언어에 의해 알려진 분별의 세계와 특별한 지혜를 가진 자가 바라보는 진실한 양상이라는 두 가지 인식의 지평을 월칭(Candrakīrti)의 『입중론(Madhyamakāvātāra)』에서 언급한다.

두 가지 진리의 체성을 전도됨 없이 증지(證知)하신 제불세존께서 ‘행(行)과 ‘싹’ 등 ‘인과 밖’의 모든 현상의 체성이 두 가지라고 선설하셨다. 이 입장이 세속과 승의이다. (『현전지』 제23계 주석)<sup>11)</sup>

10) 조애너 메이시 2004, 32-33. 서구철학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철학의 시대부터 ‘본질(本質)로서 원인과 ‘현상(現象)으로서의 결과로 바라보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원인 A에서 결과 B로 흐르는 인과모델로 이해한다. 이 사고방식에 의하면 신 혹은 창조자에서 피조물, 행위자의 행위에서 피행위자에게로 인과적 효과의 방향이 제한되는 선형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과학적인 탐구에 작용하고 있는 이 가정의 귀결은 결과 B에 나타난 차별화된 특징들이 반드시 원인 A에 있는 양상들과 유사하면서 상응해야 한다. 즉 유사한 원인들은 동류의 결과들을 산출하면서 동일한 원리에 의해 다시 B가 C에 작용하고, C는 D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인과의 고리를 만들어 간다.

11) Poussin 1912에서 원문을 인용하며, *Madhyamakāvātāra*는 MAK로 *Madhyamakāvātārabhāṣya*는 MABh로 약함.

“모든 존재(bhāva)를 진실(samyak)과 거짓(mrṣā)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 두 가지 자성을 가진 사태로 파악된다. 진실을 보는 영역(viśaya), 그것은 진실(tattva)이고 허망하게 보는 것은 세속제라고 설하였다.”(『현전지』 제23계)

MAK(1912: 102,8-11): dngos kun yang dag rdzun pa mthong ba yis, dngos myed ngo bo gnyis ni 'dzin par 'gyur, yang dag mthong yul gang yin de nyid de, mthong ba brdzun pa kun rdzob bden par gsungs.

“그 가운데 승의는 진실하게 보는 것으로 특별한 지혜의 대상성으로서의 자체의 성질(自相)이 얻어진다. [이 성질은]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의 체성이다. 다른 하나는 범부가 무명이라는 안질환과 같은 병세로 지혜의 눈이 모두 가려져 허망한 능력에 의해 보는 것으로부터 스스로의 존재성이 얻어진다. 범부가 바라보는 영역과 같이 자성적인 체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체 현상은 그 두 가지 자성이 얻어진다. 두 가지의 자성에서도 진실하게 본 영역 그것이 승의제라고 말하는 의미로, 이것의 체성을 말해야 한다. 허망하게 본 대상 그것은 세속제이다.”

MABh(1912: 102,12-103,10): 'di na bden pa gnyis kyi rang gi ngo bo phyin ci ma log par mkhyen pa sangs rgyas bcom ldan 'das nmams kyis, 'du byed dang myu gu la sogs pa nang dang phyi rol gyi dngos po thams cad kyi rang gi ngo bo nmam pa gnyis nye bar bstan te, 'di lta ste, kun rd

「현전지」 제23계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범부는 지혜의 눈이 모두 가려져 사태 일반이 스스로의 존재성을 갖는다고 믿지만, 실상을 아는 자는 인식주관(행 혹은 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식객관(색 또는 밖)에도 그와 같은 자성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익(增益)하지 않는다.

세속에서 진리로 간주되거나, 자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을 가진 것으로 각각 현현하는 것은 전도된 세간에서 '세속으로서 진리'가 된다. 세속에서 진리로 불리는 것들은 서로 의존하여 나타난 것이다. 즉 서로 의존하여 나타난 것들 예를 들면, [거울에 비친] 영상과 [동굴에서 울리는] 메아리 등은 허위임에도 무지한 이들은 사실처럼 경험한다.(「현전지」 제28계 주석)<sup>12)</sup>

범부들에게 모든 현상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스스로 존재성을 갖는 개별적 실체들이다. 범부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달리 그 대상들은 비실체성을 본질로 가지기 때

zob dang don dam pa'o, de la don dam pa ni yang dag par gzigs pa mams kyi ye shes kyi khyad par gyi yul nyid kyis bdag gi ngo bo myed pa yin gyi, rang gi bdag nyid kyis grub pa ni ma yin te, 'di ni ngo bo gcig yin no, gzhan ni so so'i skye bo'i ma rig pa'i rab rib kyi ling thog gis blo'i mig ma lus par khebs pa mams kyi mthong ba brdzun pa'i stobs las bdag gi yod pa rnyed pa yin te, byis pa mams kyi mthong ba'i yul du 'gyur pa ji lta ba de lta bu'i rang bzhin du rang gi ngo bos grub pa ni ma yin no, de'i phyir dngos po thams cad rang bzhin de gnyis 'dzin pa yin no, rang bzhin de gnyis las kyang mthong ba yang dag pa'i yul gang yin pa de ni de nyid de, de ni don dam pa'i bden pa'o zhes bya ba'i don to, de'i rang gi ngo bo ni bshad par bya'o, mthong ba brdzun pa'i yul gang yin pa de ni kun rdzob kyi bden pa'o.

12) MABh(1912: 102,12-103,10): kun rdzob des gang zhig bden par snang zhing rang bzhin med bzhin du rang bzhin du so sor snang ba de ni 'jig rten phyin ci lok tu gyur pa'i kin rzob tu bden pas rang bzhin du so sor snang ba de ni 'jig rten phyin ci lok tu gyur pa'i kun rdzob tu bden pas 'jig rten kun rdzob gyi bden pa ste de ni bcos ma rten cing 'drel bar 'byung ngo brten nas 'byung ba gzugs brnyan dang drag ca la sogs pa cung zad cig ni brdzun yang ma rig pa dang ldan pa mams la snang la sngon po la sogs pa gzugs dang sems dang tshor ba la sogs pa cung zad cig ni bden par snang ste rang bzhin ni ma rig pa dang ldan pa mams la rnam pa thams cas du mi snang ngo.

	인식주관	인식대상
세속제 (saṃvṛti-satya)	감관이 손상된 근(doṣavay-indriya) 정상적인 근(vispaṣṭa-indriya) 지자	사세속(mithyā-saṃvṛti) 정세속(tathya-saṃvṛti) 유세속(saṃvṛti-mātra)
승의제 (paramārtha-satya)	붓다	자내증(pratyātma)

김현구 2018, 171-181 특히 월칭의 이제설 참조.

문에 의존하여 발생할 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험세계에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의해 발생한 현상을 개별적인 실체로 받아들인다. 이는 실체론적 이해로서 현상을 인식의 영역에 담을 수 있도록 분할(分割)하거나 양화(量化)하여 대상을 분별하는 언어적 다양성(戲論: prapañca)을 초래한다.<sup>13)</sup> 이런 관점에서 중관학파는 언어적 다양성 혹은 차이를 만들어 가는 의도적 분할 행위를 분별이라는 인간 존재의 미혹으로 간주한다.

중관학파는 분할과 양화를 통해 차이를 양산하는 언어적 다양성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언어적 다양성이 작동하는 원리를 각성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비실체적인 사건들의 의존적 양상을 직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원인-결과 인과율으로부터 기인한 본질과 현상의 이원성을 넘어서 1인칭 의식현상과 사태 일반의 진실된 국면을 간파하는 것이다. 이는 붓다의 근원적 가르침인 무아와 차연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으며, 중관학파의 언어로는 비실체성으로서의 공성(sūnyata)과 사건들의 발생조건으로서 상호의존성이 앞선 역할을 대체한다. 공성은 연기설의 다른 표현으로, 이 두 개념은 초월적 원리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론 비판을 수행하며, 일체 현상의 발생과 소멸을 설명하기 때문에 허무주의 극복이라는 철학적 과업을 완수하는 중도(中道, madhyamā-pratipad)적 조망의 근간이 된다.

우리는 연기하는 것을 공성이라고 말한다. 그것(공성)은 의존해서 언어로 표현된 것이며 그것(공성)은 실로 중도(中道)이다. (『중론』 「관사제품」 제18계)<sup>14)</sup>

중도에 관한 주석에 따르면 수레는 그 자신의 부분에 의해 가설된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생겨남이 없는 것이다. 오직 자성을 가진 실체적 존재들이 부정된 그 자체로 수레가 가설되며, 독자적 존재성이 결여되어 있다.<sup>15)</sup>

가설이 성립하려면 먼저 존재로서 인지되는 대상의 비실체성을 전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언어 표현들 역시 존재론적 위상을 얻는다. 특히 추상화된 개념은

13) 산스크리트어에서 nominal style로 인한 오역 문제는 우제신, 2021, 241-265 참조: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특징으로서 동사나 형용사, 부사를 명사로 만들어 사용하는 언어 사용도 의존적인 발생 현상을 인식하는 장막으로 작용한다.

14) MMK(1903: 503, 10-11): yahpratītyasamutpādaḥsūnyatāmtāmpracakṣmahe/ sāprajñaptir upādāya pratipat saiva madhyamā/24-18/

15) “이 자성의 공성, 그것(공성)은 의존적인 언어표현이다. 실로 이 공성이야말로 언어표현으로 확립된다. 바퀴 등 수레의 부속에 의존해서 수레가 언어로 표현된다. 그 자신의 부분에 의존한 언어표현, 그것은 자성으로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또 자성으로서 불생인 것 그것이 공성이다. 실로 이 자성으로서 불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성이야말로 중도로 확립된다. 자성으로서 불생인 것 그것의 존재성(astitva)은 없으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sup>16)</sup>의 과정을 거치는데 월칭은 자아와 정신-신체현상의 동일성의 근거를 논박하기 위해 예시로서 ‘나무들이 숲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나무의 모임을 숲이라고 하는 것이지 나무 각각을 숲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숲이 대상화되었더라도 그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무와 숲은 동일한 것일 수 없다.<sup>17)</sup>

은유적 사상의 과정인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를 통해 다른 대상을 살펴보자. 우리는 군대의 한 조직인 사단의 행진을 구경하면서 보병과 포병, 그리고 기병대대 등을 본 다음 그 경험 내용의 하나, 하나를 포괄하는 사단을 구획하고, 이를 지시(referring)할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우리는 보병사단의 열병을 경험하면서 보병과 포병, 그리고 기병대대에 대한 시각과 청각 자극들을 언어기표 보병과 포병, 그리고 기병대대에 투사한다.<sup>19)</sup> 이때 투사란 물리적 사물로서 보병 ‘기표’(signifier)와 언어기표 보병

며, 또 자성으로서 불생인 것에는 소멸이 없기 때문에 비존재성(nāstitva)도 없다. 그러므로 존재와 비존재(bhāvābhāva)의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성으로서 불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성은 중도라고 말해진다. 실로 이와 같이 공성과 언어표현과 중도는 연기의 다른 이름이다.”(『명구론』 「관사제품」 제18계 주석)

MMK(1903: 504,8-15): yāceyamsvabhāvasūnyatāsāprajñaptir upādāya/ saiva śūnyatāupādāya prajñaptir iti vyavasthāpyate/ cakrādīny upādāya rathāṅgāni rathahprajñapyate/ tasya yāsvāṅgāny upādāya prajñaptiḥsvabhāvenānutpattiḥ/ yāca svabhāvenānutpattiḥsāsūnyatā/ saiva svabhāvanutpattilakṣaṇāsūnyatāmadhyamāpratipad iti vyavasthāpyate/ yasya hi svabhāvenānutpattis tasya astitvābhāvaḥ/ svabhāvena cānutpannasya vīgamābhāvan nāstitvābhāva iti/ ato bhāvābhāvāntadvayarahitavāt sarvasvabhāvanutpattilakṣaṇāsūnyatāmadhyamāpratipad madhyamo mārga ity ucyate// tad evampratītyasamutpādasyaivaitāviśeṣasamjñāḥsūnyatāupādāya prajñaptir madhyamāpratipad iti//

16) 레이코프·존슨 1995, 21. 여기에서 사용하는 은유란 G. 레이코프·M. 존슨에 의해서 제시된 일상적인 사고와 행위에 폭 넓게 퍼져 있는 우리 사유의 방식으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시적 상상력과 수사적 표현의 도구로서 은유의 개념과 다르다. G. 레이코프·M. 존슨에 따르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구조화한다. 이때 개념체계가 은유적이라는 제안을 통해 ① 우리의 사고방식, ② 경험 대상, ③ 일상 행위 등을 은유의 문제로 설명한다.

17) 김현구 2021 참조:

“예를 들면, ‘나무들이 숲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무가 모여 있는 것이 숲인데 각각의 나무들을 숲이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나무의 본질이 [숲]은 아니다. [따라서] 정신-신체현상의 모임이 자아로서 [가설]된다.”(『현전지』 제134계 주석)

MAK(1912: 256,11-16): phung po bdag ces brjod tshes phung rnams kyi, thsogs pa yin gyi phung po'i ngo bo min, dper na shing rnams ni nags tshal lo zhes brjod pa na shing gi tshogs pa nags tshal yin gyi, shing re re dag la yang nags su thal bar 'gyur ba'i phyir, shing gi ngo bo ni ma yin pa de bzhin du, phung po tshogs pa nyid bdag tu 'gyur ro.

18) 길버트 라일 1994, 20-23. 라일(G. Ryle)이 제시한 ‘범주 오류’는 ‘데카르트의 범주적 오류라고 명명’된 몸과 마음이 각각의 존재론적 기반을 갖는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주장이다. 사례를 든 사단의 비유는 어린

의 인식 내적인 통합이다.



모형 1) 물리적 대상(보병)을 언어기표(보병)에 은유적 사상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경험과 언어 기표를 통합한 경험들을 언어기표 '사단'에 투사한다. 비록 사단에 있는 보병과 포병, 그리고 기병대대를 하나로 대상화하기 어려운 집합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할 가능한 물리적 기표로서 간주해 언어기표인 사단과 통합한다.<sup>20)</sup>



모형 2) 물리적 대상(보병과 포병, 그리고 기병대대)을 언어기표(사단)에 은유적 사상

즉 모형 1)의 경험으로부터 모형 2)의 경험이 은유적으로 확장하며, 이 과정에서 집합개념이 존재론적 지위를 획득한다. 이는 언어기표 사단을 물리적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내 예하 부대들과 상호작용한 물리적 경험내용을 집합개념인 사

아이가 사단의 행진을 구경하면서 보병과 포병, 그리고 기병대대 등을 본 다음 '사단은 언제쯤 행군하냐고 묻는 경우이다. 이는 전형적인 범주 오류이다. 즉 모든 추상적 개념들의 존재론적 기반은 물리적 경험으로부터 발현된다. 이 논의는 김현구(2021)을 참조할 것.

19)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이론을 소개할 때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후에 존슨은 '투사(pro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은유적 투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존슨 2000, 특히 5장 참조할 것.

20) 노양진 2021, 27-31 참조; 61. 노양진은 은유적 투사를 기호적 사상으로 해석한다.

단에 투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론적 투사는 발생적 국면에서 비실체적인 언어기표 사단이 그 부분들에 의존하여 가립하는 가설의 과정이다.<sup>21)</sup>

### III. 제도적 사실에 대한 상호인과율적 해명

앞선 장에서 언어적으로만 실재하는 집합개념 사단이 존재론적 위상을 확보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집합개념뿐만 아니라 추상개념들을 실재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면, 본질주의 전통의 실체론자가 되고 만다. 반면 모든 집합개념과 추상개념을 쓸모 없는 실체론의 유물로 간주해서도 안된다. 설은 추상개념 가운데 언어적으로 실재하는 사회제도의 기원과 그 기능에 대해 탐구하여, 유용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는 모든 사회제도를 사회적 실재라고 명명하며, 그것의 존재화된 힘을 ‘위상기능’이라고 정의한다. 자연적 실재와는 다르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재들의 위상기능을 해명하면서 그는 제도적 사실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제도적 사실은 우리의 합의나 해석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나 해석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원초적 사실’(brute fact)과 구분된다.<sup>22)</sup>

이제 다시 설의 시각을 통해 원초적 사실과 제도적 사실을 살펴보자. 사실 그는 실재론에 기대어 우리의 인식활동과 상관없이 실재하는 하나의 자연세계를 전제한다. 즉 에베레스트산과 제주도는 자연세계에 실재하는 원초적 사실이며, 존재론적으로도 객관적인 개체이다. 물론 특정한 상황에서 겪는 신체적 고통은 존재론적으로 사실이지만 주관적인 영역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또한 “렘브란트는 1632년에 암스테르담에 거주했다”와 같은 참 거짓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인식론적 객관성을 담보하는 표현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렘브란트는 루벤스보다 뛰어난 예술가이다”와 같은 주관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다.<sup>23)</sup> 결국, 설은 존재론적인 측면과 인식론적인 측면에서의 주관성 객관성을 구분하여 제도적 사실들의 속성을 도출한다.<sup>24)</sup>

① 대부분의 사회적 개념들은 자기 지칭적이다. (x는 화폐로 사용하거나 간주된다)

21) 노양진 2021, 111-12. 은유적 사상은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

22) Searle 1995, 2.

23) Searle 1995, 7-9.

24) Searle 1995, 32-37.

- ② 제도적 사실의 출현은 수행적 발화가 필요하다.(나는 당신을 의장으로 임명한다)
- ③ 원초적 사실이 제도적 사실보다 논리적 우선성을 갖는다.(화폐는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 ④ 제도적 사실들 사이에 체계적 관계가 있다.(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교환을 위한 체계가 구비되어 있다)
- ⑤ 사회적 행위가 사회적 대상보다, 과정이 산물보다 우선성을 갖는다.(20달러 청구서는 어떤 것을 갚아야 하는 가능성을 담보한다)
- ⑥ 대부분의 제도적 사실은 언어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구리가 구조화된 후 화폐로 통용되기 시작하면 구리는 위상이 다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규범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는 구조된 구리가 화폐로 간주 되고 ① 새로운 주화가 특정한 계기로 등장하면서②, 구리라는 원초적 사실로부터 화폐라는 제도적 사실로 위상이 바뀐다③. 또한 화폐로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갖는다④.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사실인 화폐는 그에 상응한 과정을 확립한다⑤. 설에 따르면 제도적 사실이 규범적인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은 언어 자체가 기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제도적 사실은 언어를 전제한다⑥.

설은 제도적 사실의 구조화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자연어보다 언어의 기능인 어떤 것을 상징하면서 규약적 장치로 발전하는 과정에 주목한다.<sup>25)</sup> 그는 짐수를 기록하는 돌의 상징성을 예로 들면서 돌이 가진 기호적 양상이란 본래 ‘돌이 가진 것을 넘어서 특정한 것을 상징하며, ‘규약에 의해 구성되고, ‘공공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sup>26)</sup> 따라서 언어의 기호작용이 제도적 사실에 개입한다. 이 말은 제도적 사실이 언어의 기호작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제도적 사실들이 규약적 힘을 갖는 과정에 언어의 기호작용을 전제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언어도 그 자체로 제도적 사실이다. 결국, 설의 주장은 언어적 표현인 제도적 사실이 다시 언어를 전제하는 순환논증의 일종이 된다. 이러한 순환성으로부터 벗어 나려면 본래 가진 것을 넘어서는 특정한 ‘상징화’ 과정에 대해 우선적 해명이 요구된다. 이는 앞장에서 은유적 사상을 통해 우리 경험의 본질을 해명하면서 집합개념이 가설되는 과정을 존재론적 은유를 통해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설이 제시한 위상기능의 발현과정을 충분히 해명하였다.

25) Searle 1995, 60.

26) Searle 1995, 66.

다음으로 '규약에 의해서 제도적 사실로 기능하고 모두에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작동방식을 해명해야 한다. 이 말은 규약만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제도적 사실들이 사용자에게 의무력을 요청할 수 없다. 즉 의무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제도적 사실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사실이면서 분할과 양화의 대표인 인도 아라비아 숫자 체계로부터 등장한 위치 기수법을 비실체성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의무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해명하겠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 체계는 실제 삶에서 활용하는 양화방식으로서, 공성 즉 비어있음을 사유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셈법에 추가하였다. 그 뒤 십진법에 비어있다는 뜻의 '0'을 도입하여, 그것이 놓인 자리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기로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54+48=102$ 라는 연산에서 두 번째 숫자 0은 10단위가 비어있음을 지시하는 기호다. 따라서 십진법 체계에 0을 기호로 도입하면서 인류는 특정 수들에 대한 표기를 가지는 '명수법'(sign-value notation)의 시대에서 숫자의 위치를 이용하는 '위치 기수법'의 시대로 진입한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1, 2, 3과 같은 숫자들, 덧셈과 뺄셈을 포함하는 사칙연산, 십진법과 0을 활용하는 현재의 위치 기수법 등은 단순한 기호들의 조합이 아니라 인류 지성의 산물이다. 이 기수법이 인류 지성의 산물인 까닭은 사물을 양화하기 위해 인류는 존재를 분석하고 탐색했으며, '인식의 가위질'<sup>27)</sup>을 통해 물리적 세계의 존재를 우리의 인식틀 안에 가져오는 대상화의 수순을 밟았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가 만든 제도로서 위치 기수법이나 사칙연산이 초월과 선행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떻게 물리세계에서 통용되며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되는지 분석해보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십진법에 기초한 사칙연산을 학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사칙연산을 통해 교환, 매매, 예금과 같은 활동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사칙연산과 같은 규약을 설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적 실재'라고 부를 수 있다.<sup>28)</sup> 더 정확하게는 제도적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실은 화폐, 결혼, 정부와 같은 것으로 자연물과 달리 우리의 합의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이 합의는 '집단 지향성'(collective intentionality)을 지각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맺은 것이다.<sup>29)</sup> 이 규약의 내용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상징화라는 기호작용을 통해 '위상기능' 즉 가설을 통해 확립되기 때문이다.

27) 김성철 2006, 168-69.

28) Searle 1995, 40, xii 참조.

29) 존 설 2010, 122 참조.

더불어 설은 제도적 사실이 갖는 '의무력'을 통해 규약이 지탱하는 동력의 원천으로 삼는다.<sup>30)</sup> 설은 제도적 사실이 발생하는 조건을 "X는 C리는 맥락에서 Y라고 간주된다."<sup>31)</sup>와 같은 명제로 표현한다. 이 명제를 위치 기수법에 적용해보면, 십진법에 기초한 위치 기수법(X)은 교환, 매매, 예금과 같은 활동을 위한 사회적 맥락(C)에서 양화방식(Y)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설은 사회적으로만 실재하는 위치 기수법과 같은 제도들도 이를 이용하려는 집단의 '네트워크'(Network)와 '배경'(Background)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제도는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활동의 배경 안에서 출현한다. 즉 교환, 매매, 예금과 같은 활동을 위한 사회적 맥락(C)이 주어지는 상황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공동체의 배경을 전제해야 하며, 네트워크 역시 재구조화나 자기 변형의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출현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은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들과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제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건들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운영되는 다양한 외적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관점이 중관학과의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연기적 관계망이다. 이미 중국 화엄가들이 연기적 관계망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 맺기를 설명하려 했듯이, 이러한 원리로부터 모든 제도들은 주변 조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론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sup>32)</sup> 즉 발현의 측면에서 가설의 과정을 거친다면 상호의존의 관점은 우리 사회에서 출현하는 제도적 사실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구가 된다.

사칙연산이 교환을 수행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호체계로서 집단 지향성에 의해 위상기능을 부여받더라도 의무력만으로 사회적 실재를 지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지적능력도 십진법에 근거한 사칙연산이라는 규약을 수행하는 배경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제도적 사실이 사용자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생 인류의 지적능력이 진화하거나 혹은 지금보다 더 편리한 양화방식이 등장함으로써 현재의 십진법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연산체계를 활용하는 슈퍼컴퓨터의 경우처럼, 십진법보다 더 편리한 양화방식이 등장하거나 인류의 인지능력이 발달한다면 새로운 연산모델이 등장할 수

30) Searle 1995, 40.

31) Searle 1995, 94-96 참조. ① 비행위적 기능(nonagentive functions) ② 행위적 기능(agentive functions) ③ 행위적 기능의 하위 범주로서 상징적 기능 세 가지로 구분한다.

32) 다케무라 마키오 2019, 236-238 참조.

있다. 예를 들면, 인도인들처럼 모든 인류가 20단 또는 30단을 지금의 구구단처럼 익히고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연산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십진법이 더 편리한 기수법의 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수법 체계에서 5+7은 12가 아니라 1<sub>2</sub>로 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표기법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받아들이는 십진법과 기수법은 변화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없는 까닭은 사용자와 상호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관계맺기의 한 축인 인류의 지적능력이 규약성과 공공성을 도출하면서 제도적 사실의 무제약적 분기를 막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는 셈이다.

#### IV. 비실체성과 상호인과율의 철학적 확장성

중관학파의 언어체계는 가치론적 허무주의자(nāstika)라는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서 가치론적 허무주의라는 혐의는 공성 즉 비실체성으로부터 사태 일반이 열린 관계를 지향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출된 무작위성과 상호의존적 관계의 가변성 때문에 생겨난다. 무작위성과 가변성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특히 원인-결과 인과율 패러다임에서는 관찰 범위 밖의 변수를 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실체성과 상호의존적 관계로부터 드러나는 무작위성과 가변성을 가치 판단의 혼란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원인-결과 인과율 패러다임에 반하여, 비실체성과 상호의존적 관계망에 근거한 사유방식인 상호인과율 패러다임은 가치판단의 분명한 기준을 명료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객관적 의미 교환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되어, 인식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연기설에 대한 상호의존적 해석을 사태나 현상 일반에 적용하여 상호의존성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그 사유방식을 범주화하는 작업은 중관학파의 입장에서 낯선 것이다. 그 까닭은 중관학파의 주된 논증 전략이 자기주장을 전개하기보다 실체론과 단멸론의 모순을 드러내는 귀류(歸流)의 형식을 갖추면서 발전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관학파가 실체적 관념들을 해체하면서 보여준 언어와 현상 사이의 자기동일적 지시관계 비판은 불교 내부적으로도 가치론적 허무주의라는 비난으로 돌아온다.<sup>33)</sup> 여기에서 자기동일적 지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불변하면서도 독자적인 실재를 설

33) 김현구 2016 참조. 중관학파와 초기 유가행파 사이의 철학적 입장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 허무주의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언어와 경험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 가는 입장이다.

정하지 않으려는 비실체성에 입각한 태도이다. 사태와 언어의 내재적 지시관계를 해체하기 위해서 인식 외적인 사태에 대해 의존적 발생이라는 창을 통해 비실체적 진실을 자각해야 하며, 인식 내적인 언어활동이라는 의도적 분할을 통해 다양한 언어 기표 혹은 기호(sign)들이 가설되는 과정과 이를 매개로 차이가 양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만 언어 기표들의 차이와 위상을 매개하는 과정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지시관계를 해체하는 인지적 접근으로 비실체성, 즉 '공성'이라는 부정적 사유방식으로 접근한다. 중관학파가 정의하는 공성이란 형이상학적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지시하기 위한 '안티테제'(antithesis)이다. 다시 말해 중관학파는 사물의 본래 모습을 덮고 있는 (samāropa) 형이상학적 구조물을 허물기 위해 부정적 어휘로 해체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특히 중관학파의 해체적 반성은 우리가 지각한 내용을 인식의 대상으로 지향할 때, 개념에 의해 훼손된 양상과 탈 개념화된 불가언설(不可言說)적인 양상을 구분할 줄 아는 인식의 지평을 획득하도록 이끈다. 즉 이러한 사유를 통해 모든 규범과 제도들이 "언어·사유에 의한 구성적 산물일 수밖에 없는 '차이 현상들'<sup>34)</sup>"이라는 이해를 확보한다. 따라서 공성이라는 안티테제는 사회적 실재나 제도적 사실들의 가치의 차이가 물리적인 현상 이상으로 왜곡되어 필요 이상의 권위를 담보할 경우, 훼손된 차이 현상들의 위계를 견어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차이 현상들의 위계가 견어지고 나면, 사회적 실재나 제도적 사실들은 오직 '언어적으로만 실재'(prajñāpatsat)한다는 자각에 도달한다. 하지만 사회적 실재나 제도적 사실들은 언어적 실재일 뿐이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 '작용력'(arthakriya)이 구조화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성찰이어야 한다. 이 성찰은 앞 장에서 위상기능과 의 무력을 탐구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상호의존성의 연기적 관점이 '관계 맺기'의 제약을 담당하는 부분도 고찰했다. 언제나 관계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요구되며 어떤 것과 그 이외의 것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한다. 즉 관계란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작용하거나, 그 역으로 있거나 혹은 서로 작용하여 어우러지는 등 작용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드러난 현상에 관계하는 조건들은 비실체성에 바탕하여 무한히 관계 맺기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무한히 확장가능한 관계 맺기는 상호의존성의 조건 때문에 다시 '제약'의 가능성이 담보된다.

진실한 양상이란 비실체적 존재들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의한 현상의 발현이지만,

---

34) 박태원 2021 참조.

이 역시 사실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시스템(system) 이론 분야에서 제도적 사실들이 출현하고 유지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비실체성과 상호의존적 관계망에 근거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시스템이란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은 그 구성요소들이 조합된 방식에 의해 결정되며,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시스템의 성격은 결정된다.<sup>35)</sup> 대부분의 시스템은 그것의 하부 시스템 내에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처럼 보여도, 전체로서의 시스템은 그것과 다른 창발(emergent)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복잡계(complex system)<sup>36)</sup>에 속한다. 또한, 시스템 사고를 바탕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상을 복잡계로 간주하여 그것을 이루는 하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 피드백 양상을 파악하여 패턴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복잡계에서 구성 요소들의 피드백 양상을 패턴화하면 그와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는 복잡계 역시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sup>37)</sup> 현재는 시스템 사고에 기반해 각종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 방향의 결정형, 기업운영의 효율성 증진형 등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 사고는 통합과학적 시각에서 서로 분리된 개념들을 연결하여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교육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 V. 나가며

설은 '사회적 실재'를 통해 사회제도를 비실체적 규범성의 국면에서 해명한다. 그의 해명은 자연계의 물리적 대상들과 달리 우리의 정신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하며, 오직 합의를 통해서만 효력을 갖는 사회적 실재의 존재론적 위상을 설명하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사회적 실재가 드러내는 위상기능과 의무력을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그 원천을 찾으면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 역시 사회적 실재라는 사실 때문에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반면 중관학파는 가설 개념을 통해 물리적 기표와 언어 기표 사이의 내재적 관계성을 인과적 지시관계로 전환하여 비실체성

35) Bertalanffy 1968 참조.

36) 윤영수·채승병 2005, 91-96 참조.

37) Goldstone·Wilensky 2008, 38. 여기에서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적용된 사고법으로써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여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접근법이다. 이때 시스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순환적 혹은 인과적 관계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복잡한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력이다.

을 드러낸다. 이때 가설 개념을 적용하여 추상적 대상 역시 그 대상에 붙여진 언어 기표 사이에서 확보되는 인과관계로 해명한다. 여기에서 가설이란 물리적 대상 혹은 추상적 대상에 대한 언어 기표의 투사과정으로 우리의 은유적 사상 능력이다. 또한, 사회적 실재의 발현 과정에 관여하는 우리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가 언어 그 자체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 사상 능력으로부터 기인한 언어적 활동인 가설 구성화로부터 발현한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사회제도가 출현하면서 드러나는 의무력을 사용자들에게 작동하는 규범성의 배경과 우리의 종적 조건인 인지적 역량과 제도 사이의 상호적 의존관계 안에서 탐색하였다. 여기에서 강조한 상호적 의존관계로서 상호인과율은 중관학파의 연기관으로부터 가져왔으며, 이를 제도적 사실의 일종인 위치 기수법 체계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실을 지탱하는 의무력이 그 사용자가 가진 인지능력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해 제도적 사실을 유지하는 제약의 조건임을 명료하게 드러내었다.

이상 분석의 결과, 사회적 실재의 '발현과정을 가설 개념을 통해 인과적 지시관계로 드러내면서 차연성으로부터 제안된 비실체성이 존재 현상의 근본적 실상임을 보여주었으며, 중관학파가 주장하는 상호의존성을 통해 제도적 사실의 유지와 소멸과 같은 '제약의 기능을 제안하였다. 이는 중관학파의 주장인 비실체성으로서의 공성과 상호의존적 관계 맺기를 철학적 현안에 적용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관학파가 받아 온 가치론적 허무주의의 혐의를 극복하고자, 중관학파의 사상으로부터 철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언어규약적 입장을 탐색하였다.

- MAK/ MABh: *Madhyamakāvatārabhāṣya*. Louis de la Vallée Poussin, *Madhyamakāvatāra Par Candrakīrti*. Bibliotheca Buddhica IX. 1912.
- MMK: *Mūlamadhyamakakārikās*. Louis de la Vallée Poussin, *Mūlamadhyamakakārikās de Nāgārjuna avec la Prasannapadā Commentaire de Candrakīrti*. Bibliotheca Buddhica IX. 1903.
- SN. I: *Samyutta Nikāya*, I.
- Siderits, Mark And Shōryū Katsura, *Nāgārjuna's Middle Way: the Mūlamadhyamakakārikā*, Boston: Wisdom Publications, 2013.

『순정리론』권25

- 김현구. 2015. 「분별(vikalpa)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불교학보』 제71집; 107-133.
- \_\_\_\_\_. 2016. 「무이(無二, advaya)의 중도적 의미」 『불교학보』 제74호; 41-71.
- \_\_\_\_\_. 2018. 『입중론 현전지 연구』. 씨아이알.
- \_\_\_\_\_. 2021. 「뿌드갈리와 부실법의 실체적 관계 비판」, 『불교학보』 제94호; 153-177.
- 金星喆. 2006. 『중관사상』. 민족사.
- 노양진. 2009. 『몸 언어 철학』. 서광사.
- \_\_\_\_\_. 2021. 『기호적 인간』. 서광사.
- 다케무라 마키오, 조배균 역. 2019. 『화엄이란 무엇인가』. 씨아이알.
- 레이크프, G·M. 존슨, 노양진 외 역. 1995. 『삶으로서 은유』. 서광사.
- 박태원. 2019. 「원효의 일심과 깨달음의 의미」. 『불교철학』 제4집; 5-76.
- 안건훈. 2005. 『인과성 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 우제선. 2021. 「산스크리트 nominalstyle의 분석을 통한 『寶性論』 제1장 제27송의 해석과 번역」, 『불교학 연구』 제66호; 241-265.
- 윤영수·채승병. 2005.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 조애너 메이시, 이종표 역. 2004. 『불교와 일반시스템 이론』. 불교시대사.
- 존 설, 강신욱 역. 2010. 『신경생물학과 인간의 자유』. 궁리.

존슨, 마크, 노양진 역. 2000. 『마음 속의 몸』. 철학과현실사.

라일, 길버트, 이한우 역. 1994. 『마음의 개념』. 문예출판사.

Bertalanffy, Ludwig von. 1968. *General System Theory*. New York: George Braziller.

Searle, John. 1995.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New York: Free Press.

Goldstone·Wilensky. 2008. *Promoting Transfer by Grounding Complex Systems Principles* 17,  
no. 4: 465-516.

## Interpretations of Middle-way School on the 'Dependent origination (*pratītyasamutpāda*)' and their Philosophical Perspectives

Kim, Hyungu  
(Research professor, CNU)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claim the theory of dependent arising as a “mutual causality” accepted by the Mādhyamikas, with the process of social system emergence and constraint, and account for the “social reality” proposed by J. Searle as the concept of “designation by provisional naming”. According to Searle, the source of ‘status functions’ and ‘deontic powers’ is revealed by social reality through the language used by its participants. However, assuming that social reality presupposes language, as he argues, he falls into the error of creating a circular argument due to the fact that languag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is also a social reality.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is circular argument it is necessary to explore a process of securing a status function, within a social system and social reality, based on the concept of ‘designation by provisional naming’, which is a metaphorical projection. Next, it is evident that deontic power, revealed through institutional fact, stems from cognitive competence, which is the longitudinal condition of the users of language.

In fact, the Mādhyamikas are accused of being nihilistic with regard to axiology, by applying the emptiness of non-substantiality to all phenomena. This accusation of valueistic nihilism levelled against the Mādhyamikas

is, however, based on the misapprehension that non-substantiality means relationships emerge from emptiness, and are therefore random. This randomness implies variability in which unpredictable variables can influence the phenomenon of existence. In actual fact, manifestation of phenomenon due to the interdependent relationship of non-substantial beings is the ultimate truth, and there is no chaos in the real world or in the area of value judgment.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at if non-substantiality provides a space for the expansion of relationships, the concept of interdependence actually restricts relationship creation. It is therefore argued that non-substantiality and interdependence act as axes to stabilize social realities, revealing that the perspectives of the Mādhyamikas can solve philosophical issues.

**Keywords** : Deontic power, Designation by provisional naming, Mutual causality, Status function, Social reality

2023년	3월 7일	투고
2023년	3월 27일	심사완료
2023년	3월 31일	게재확정